IBK경제연구소 | 경제분석팀 책임연구원 송주경 jk24031@ibk.co.kr ☎ 02-729-7385

2016년 4사분기
수출입 중소기업 이슈조사



참!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| IBK경제연구소

2016년 4/4분기 수출입 중소기업 이슈조사 결과

○ 수출입 중소기업의 54%는 올해 수출입 체감 경기가 나빴다고 응답 (보통 38%, 좋았다 8%)

○ 수출입 중소기업의 47%는 2017년 수출입 경기가 올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(악화 32%, 호전 2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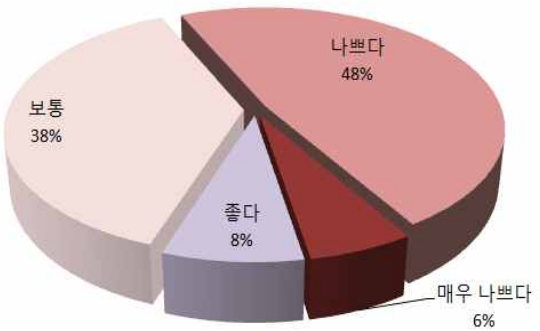
(1) 수출입 경기 현황

□ 수출입 중소기업의 54%는 올해 수출입 경기를 전반적으로 나쁘게 인식(보통 38%, 좋았다 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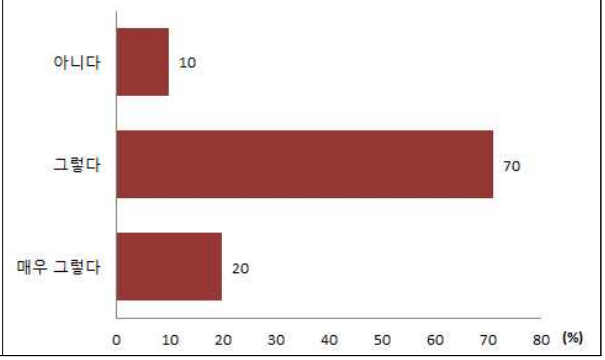
○ 업종별로는 플라스틱 제품 기업의 75%, 전자·전기의 70%, 철강 및 비철금속의 60%가 올해 수출입 경기가 어려웠다고 응답해 全업종 평균치를 상회

○ 응답기업의 90%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現 글로벌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

2016년 수출입 체감 경기



글로벌 경제 위기 인식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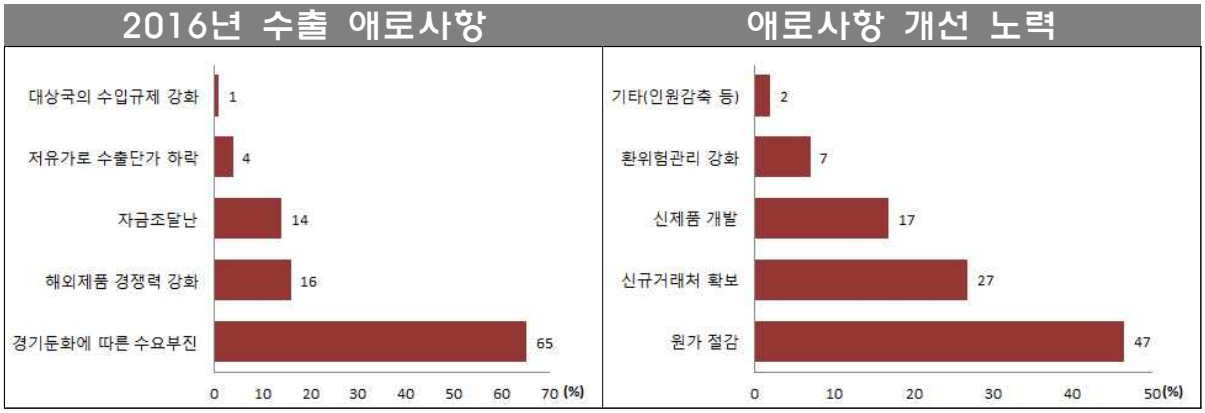


□ 올해 수출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애로사항은 '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부진'(65%)으로 나타남

○ 국가별로는 ASEAN, 중동, 미국, 일본, EU 순서로 거래 대상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어려움을 호소

- 對중국 거래기업의 경우 '거래 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부진'보다 '중국 등 해외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'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됨

○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'원가절감'(47%), '신규거래처 확보'(27%), '신제품 개발'(17%) 등으로 조사됨



□ 2016년 남은 기간동안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 요인은 '환율변동성 확대'(70%)로 나타남

○ 그 외 '산업구조조정'(11%), '한진해운發 물류대란'(10%), '유가변동성 확대'(6%)가 뒤를 이음

(2) 수출입 경기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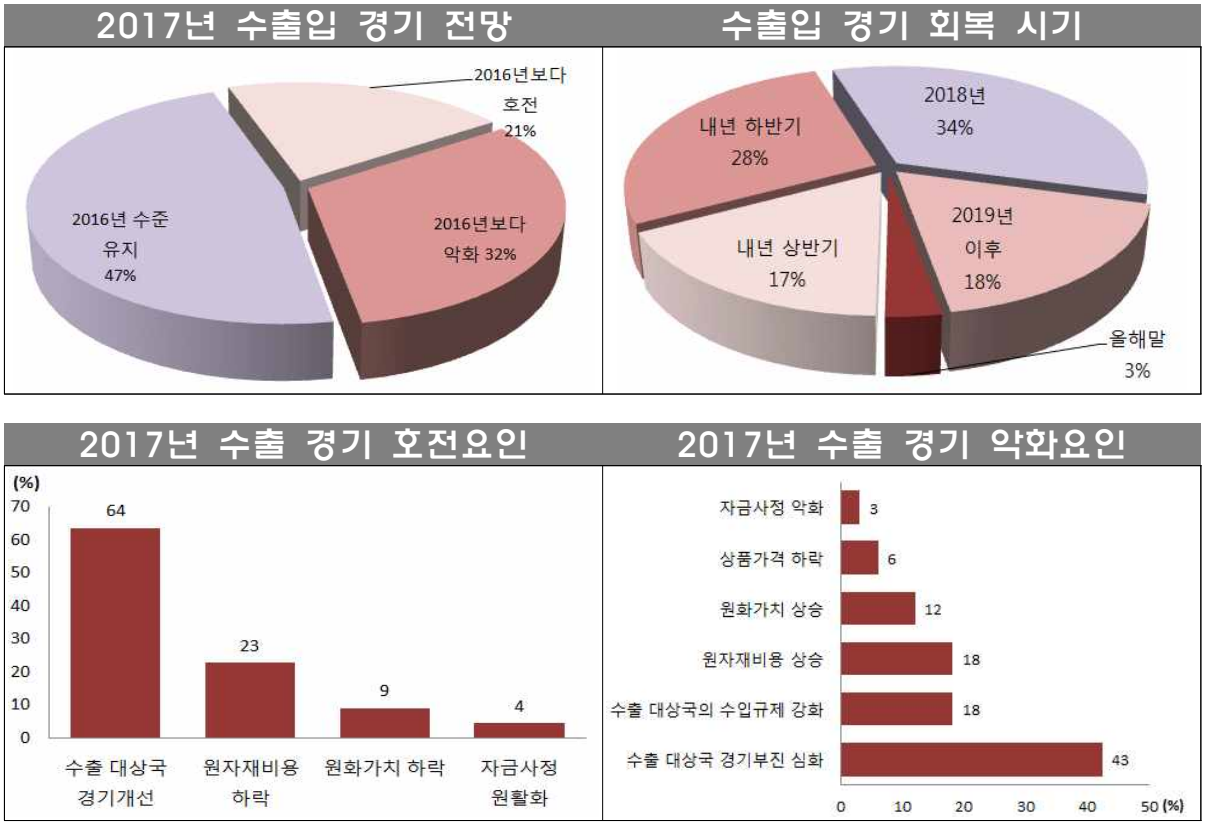
□ 2017년 수출입 경기는 2016년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기업이 47%로 가장 많았고, 악화될 것이라는 기업도 32%로 높은 수준을 차지

***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21%**

○ 내년 수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'수출 대상국 경기 개선'(64%), '원자재비용 하락'(23%) 등을 기대했고,

○ 수출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'수출 대상국 경기부진 심화'(43%), '수출 대상국 수입규제 강화'(18%), '원자재비용 상승'(18%) 등을 우려

○ 수출입 경기 회복 시기는 2018년을 예상하는 기업이 34%로 가장 많았고, 내년 하반기(28%), 2019년 이후(18%) 순서로 나타남



(3) 원/달러 환율 전망

□ 수출입 중소기업의 69%는 2016년말 원/달러 환율이 현수준*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(현수준 유지 21%, 하락 10%) * 1,110원~1,130원

○ 원/달러 환율이 현수준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 응답 기업의 94%가 '미국 기준금리 인상'을 들었고,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 '미국 기준금리 인상 지연'(60%)을 꼽음

- 그 외 원/달러 환율 상승 이유로는 '북핵리스크'(4%), '유럽發 금융불안'(2%)이 있었고, 하락 이유로는 '일본·유로존 등 주요국 통화완화정책'(20%)와 '한국 경상수지 흑자 지속'(20%)으로 조사됨

○ 2016년말 원/달러 환율 전망값(평균값)은 1,153원으로 나타남

< 조 사 개 요 >
1. 조사기간 : 2016. 10. 17 ~ 2016. 10. 19 (3영업일간)
2. 조사대상자 : 당행 거래 중소기업 150개사
3. 응답 비율 : 67%(101개사)